지역공동체의 활동 사례와 활성화를 위한 대안

유 수 상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복지재단
월평빌라 원장

요즘 많은 사람들이 농촌의 '희망'을 이야기한다. 농촌에 관련된 사람들이 입만 열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농촌이 그만큼 희망에 목말라 있다는 말일 것이며 농촌이 희망과 그만큼 멀리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제가 사는 거창도 최근 그 희망으로 웃고 또 울며 가슴을 쓸어야 했습니다. 바로 '승강기 관련 대학과 산업단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과정이 그것입니다. 늘 부족한 농촌에, 돈은 희망이 됩니다.

산업단지의 실체가 무엇이든 그것이 돈과 연관된 것이라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희망이고 농촌을 단숨에 변화시킬 대단한 것이 되어 열병처럼 사람들을 들뜨게 합니다. 그러나 아직 산업단지로 '희망'의 실체를 발견했다는 농촌은 만나기 힘듭니다.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 우리 귀에 너무도 익숙한 구체적인 상징들이 농촌의 희망이 못된다면 우리는 농촌의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농촌이 갖고 있는 '공동체', '공동체성', '공동체문화의 회복'이야 말로 농촌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상징, 열쇠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15년 전 이 '공동체의 회복' 이라는 '희망'을 찾아 산골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이며, 사회사업을 하는 사회사업가입니다. 제가 지난 15년간의 삶속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풀어 보려고 합니다.

1. 농촌을

시는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며 부지런히 묻고, 살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책자와 자료를 찾아보면 농촌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땅 이구나 그래서 내가

저 [illegible]

세대, 수급자, 의료보호대상자 … ' 라는 문제들에 집착하여 개발사업을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농촌은 여건이 어렵고 소외돼 있으니, 있는 자원 없는 자원 끌어다가 조직화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큰 일 날 소리입니다. 그에 앞서 '농촌에서 유지되는 좋은 전통, 이웃 간 인정과 나눔, 마을의 공동체성을 살펴 그것을 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목회도 그렇고

밑반찬 지원으로 어떻게 지역사회의 바탕을 기르고 어르신들의 인격을 세울 수 있을까요?

마침 잘게 썬 고기를 다 볶은 참이라 할머니께 '간 좀 봐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국자 맛보시더니 '됐다' 하시더군요. 지난 후에 그 때를 생각하니 '간 좀 봐 달라' 부탁드리는 것만큼 반찬 만들기에서 중요한 것은 없다 싶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랑하는 남편 혹은 시어머니께 간을 봐 달라하고 '음, 맛있는데' 한마디 듣는 것으로 요리하는 장면이 완성됩니다. 그런 장면이 빠지면 뭔가 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 봐달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밑반찬으로 사회사업을 한다면 '어떤 반찬을 드실지, 어떻게 만들지' 여쭤보는 것은 시작이요 '간 좀

장님의 축하 인사로 시작하고 ... 모든 게 자연스럽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있습니다.

아저씨 한 분은 검은 비닐에 사탕 한 봉지를 사 오셔서 쓰 [illegible]

공생하지 않으면 사람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사업이 위하는 바 그 중심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에 있거니와, 당사자의 삶 그 실질은 자주성이요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실질은 공생성이니, 이러므로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을 사회사업 핵심 가치라 하는 겁니다.

1) 자주성의 핵심 요소는 당사자의 '주체의식과 역량'입니다.

주체의식이 있어야 자주하려 할 것이요, 역량이 커질수록 자주하는 일이 많아지고 수준 또한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돕되 다시

상을 기해왔던 상호부조와 두레의 전통에 기반 한 농촌공동체가 시장지상주의의 반공동체성을 치유하는 가치의 근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먼저 농촌지역에서 '농촌공동체'가 갖는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 가치를 올곧게 세우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풍성한 농촌공동체가 지역문화를 이끌고, 지역문화가 내재적 가치를 배제하고 경제적 가치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신자유주의가 황폐화시킨 세상을 치유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하는 동지들과 산골에서 촛불 하나를 켜고 오늘도 오롯이 서 있습니다. 내일 또 동지 한 사람이 기